

충북테크노파크 소개 및 지원사업 소개

손현철†

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sonhc@cbtp.or.kr†)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산업발전법 제8조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의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많은 지역 혁신기관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어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지역산업 정책기획, 창업보육,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력 전략 산업분야인, 바이오, 반도체, 태양광, IT융합 복합 산업분야에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동력 개발 및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주요 지원 조직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 지역산업육성실, IT융합센터, 차세대반도체센터, 바이오센터가 있으며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위치한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충북의 북부권인 제천에 위치한 한방천연물센터가 있다.